

[좌담회]

##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가들과의 만남

참가자: 박순종 · 김헌주 · 김영경 · 김연희 · 최병두 · 이희영

정리: 이교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김연희 소장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최병두 편집위원장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이희영 편집위원



대구 외국인 센터  
박순종 목사



경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헌주 소장



다문화 연구회  
김영경 대표

김연희: 저희가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관해서 연구자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들의 3인 3색

최병두: 먼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소개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 수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 활동들 가운데 하나이고, 다문화 교양교육도 담당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다문화 지원 사업들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예로 우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 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다문화 북카페 ‘이음’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연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연구소 소장님이나 다른 연구위원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세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관련 지원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들과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해서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좌담의 전체 주제는 ‘지역사회 다문화 지원활동과 연구과제’이지만, 좌담의 순서는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정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 주시고 저희들과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을 함께 얘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요구하는 바는 없고, 현재 하고 계시는 활동과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희: 먼저, 독자들 위해서 각자 소속해 있는 기관의 목적과 사업을 소개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병두: 네,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우선 하시는 일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경위가 있으면 우선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까지 털어 놓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분께서 각각 다른 배경을 거쳐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소장님은 노동운동에서 시작하여 주거운동을 거쳐 다문화

지원활동으로 옮겨 오게 되셨지요? 또 박순종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노숙자 쉼터라던지 이런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런 일로 저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웃음), 참 오래된 인연입니다. 그리고 사실 김영경 선생님은 저하고 조금 더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는데, 오래전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에는 활동가로 변신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과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현주 소장님 아니면 박순종 목사님?

박순종: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예수님 말씀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화두라고 할까요. 저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도시 서민 아파트 지원활동이나 또는 노숙자 쉼터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주노동자 문제들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자 목사님하고 같이 일했던 외국인노동상담소에 한 4년 있었고, 다시 분리해 나와서 이주민선교센터에서 그럭저럭 만 1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자들을 활동은 작년에 만 10년 되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따로 설립을 했지요.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빈민들과 마찬가지로 또는 더 열악하게 한국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 베트남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이게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한인교회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교회 위치는 비산동입니다. 그 쪽이 대구지역 전체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범물동 용지아파트에 도시 빈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한 4년 하다가 거기서 나왔죠. 도시 빈민에 관한 활동은 그 곳을 나온 후에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산동에 있는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곳에 베트남 친구들이 많았고, 이들의 밀집 지

역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다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힘들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에 여기서 목회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지요. 들어와서 그 동네 돌아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여기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돈 벌어서 귀국하면 자기는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데 한국에 도시빈민들 할아버지들, 장애인들, 애기들 희망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하여튼 그런 지역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주를 와서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김연희: 여기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주거비가 싸서겠지요?

박순중: 예, 그것도 있고 또 3공단, 염색공단 등 공단 옆에 인접해서 공단을 끼고 있으니까 일단 직장이 가깝고 주거비도 싸고... 그래도 한 달에 이십만원 내외 정도 되니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현주: 예, 저는 이런 일 몇 번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저는 대구 비산동 지역에서 원래는 지역주민운동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비산동 지역을 ‘대구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주로 사는 지역인데 아이들 공부방하고 한 십년 그런 일을 하다가 옆으로 빗겨가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하는 후배들도 너무 힘들고 해서 ...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운동을] 마음을 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사업한답시고 5년 쫓아다니다가 말아 먹었지요. 한참 낙담상태에 있을 때 동지들이 성서공단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같이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해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시다만 성서지역을 돌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정말 힘든지 몰랐을 때입니다. 그 때는 한국 사회 속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지만,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 특히 비산동에 있을 때 그런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7,80년대의 구로공단 지역이나 비산동 지역 쪽



다문화 활동가와의 좌담회

방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에 살려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것이 주요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생각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기관지에 그런 이야기를 실었는데, 아마 그 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김연희: 너무 힘드셔서요?

김현주: 그건 사실이니까... 그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나니까 제가 몰랐던 상황이 너무 심각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흔히 말해서는 현장, 즉 공장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외에 다른 [일상생활의] 문제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벌써 한 1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주로 회사에서 손 잘리고 다치는 문제,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열악한 노동 조건이었으니까 그런 문제 쫓아다니는 일에 급급했죠.

지금도 그 기억은 선명해요. 제가 처음 출근해서 첫 상담을 하는 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당시 사무실은 성서에 있었습니다. 어찌나 바쁘든지... 수요일 저녁에 무료 진료소를 하고 상담도 하는 날이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모두 퇴근하고 밤늦게 오니까 청소도 하고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잠깐 짬이 난 틈을 타서 저녁이라도 먹고 일을 하려고 자장면을 시켰는데 자장면

을 시키고 난 후에 이주노동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진료 소로 보내고 차트 정리하고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3, 4시간이 지나고 밤 한 10시쯤 되었나? 저쪽 구석에 보니까 아까 시켰던 자장면이 통통 불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 때 그 느낌 그대로 10년을 살아온 거 같아요. 이제는 그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지요. 그 때 불어터진 자장면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개선되어야, 내가 자장면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에 6개월 정도 쉬었는데 쉬기 때문에 행복해야한다는 것도 창피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를 안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11월 1일에 복귀를 했는데 그 때부터 전화를... 다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어쨌든 사건 사고에 대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화기는 안 끕니다. 안 끄고 밤에도 전화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사무실은 항상 착신이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

김영경: 저는 사실 두 분 활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를 처음 접한 거는 [최병두] 교수님과 같이 연구 활동을 한 게 계기가 되었는데요, 2007년인가 그래요. 그 때 처음 접한 이후, 다문화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마음 깊이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주제를 공부하던 습관이 붙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연구재단에도 연구지원을 그런 쪽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구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학교와 현장 사이가 사실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이 설문할 때면 현장 방문을 하여 필요한 것만 충족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 통계치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의 삶

이 저희들 마음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재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불쑥 설문지를 내미는 거보다는 같이 생활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함께 공감하는 게 낫겠다 싶어 준비를 조금씩 했었어요.

도와주실 분들이 있냐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마침 경산에 결혼이주자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사람들과 한 번 해보세요’하고 알려주었어요. 제가 현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분들을 만나서 ‘제가 연구소를 할 거 같은데 저희들 공간에 와서 같이 합시다라고 하니 그 분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같이 하게 되고 나서 조금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단지 공간이 필요해서 저하고 함께 하려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의 취지와 가치를 이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가 큰 고민이었어요.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필리핀공동체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들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있어서, 제가 뚫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오직 자기들끼리만 뭉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공동체인 우리 연구소는 필리핀, 베트남뿐만 아니라 가슴 공동체, 다른 민족 공동체들이 다 함께 하고 또 본래 주민들도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미묘한 간극이 제하고 이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연구소를 어디 가서 자기네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당신들 것만이 아니야. only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희들 나갈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우리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과정을 누가 담당 하나면 남편들이 해요. 우리말을 하니까. 하지만 그 남편들도 다 다양해요. ‘여기서 일 좀 하면 월급주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떨어져나간 경우도 있고요. 월급도 안 주는데 뭐 하러 일하냐하며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초기단계에서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병두: 오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그 동안 전개되었던 지역사회운동의 전환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거쳐 왔는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로 이사 와서 살아가게 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는 대구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로 오자마자 이리저리 노동운동 과정에 끼워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노운협이 주최했던 노동자교실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1990년대 중후반에는 주거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구 침산동이나 비산동 등 공장지역 주변에는 주거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대구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빈민운동이 상당히 늦었고, 특히 주거와 관련된 운동, 예로 주거철거반대운동이 조직화되질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침산동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가운데 주거운동보다는 빈민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지만, 빈민운동에서 주거문제를 특화하여 아파트 건설로 인한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철거반대운동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거 재개발과 관련된 반대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결국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운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운동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주거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더라면 참 좋았을 운동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파트 주거가 이미 가진 자라는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철거반대운동이나 무주택자운동이 아니라 주거를 가진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는 주민들도 대체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실현되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산층운동 비슷하게 되어 버리니까,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나 실무를 담당했던 활동가들도 크게 신명하게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순종 목사님과 김현주 소장님은 사실 그 때 함께 했던 분들이지요. 그런데 각자 자신들의 생활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서, 다문화 관련 사회운동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등장하고 문제가 부각되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지요. 전국적으로 외국인 이주자 수가 1990년에만 해도 5만 명에 불과했는데, 2000년에 와서 10배나 증가하여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150만 명 가까이 되었고, 지금은 아마 200만 명쯤 되겠지요. 이렇게 외국인 이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외국인 이주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문제도 있고, 이들의 인권이나 정체성에 대한 상호 인정과 권리에 관한 윤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문화 관련 문제들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지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운동의 변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운동을 통해 이를 요구하거나 정책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세 분 선생님들에 대한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국적 공동체, 다문화 공동체, 지역 공동체

최병두: 어쨌든 앞서 얘기를 이어가면, 각자 활동에서 일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시 왜 베트남 이주자, 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주자들에 특화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다음 논의 주제로 앞으로 하시는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순종: 김영경 박사님 의견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주친구들은 출신 국가별로 밀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적별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다른 국가 출신은 참여가 어렵게 되겠지만... 그러나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고정수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대구평화교회에서는 중국공동체가 있고 베트남공동체, 네팔공동체, 스리랑카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담당하는 목사님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베트남을 담당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과만 놀러가고 베트남 친구들하고만 놀고, 하여튼 그 정도로 배려를 안 해주면 공동체 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활동 '사무실을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베트남인 교회를 따로 만들게 되었는데, 물론 중국 친구들도 없는 것도 아니고 파키스탄 사람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려면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로 기본적으로 통역 간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려면... 그걸 위해 자원 봉사자나 상담자를 구하기 어려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공동체 한 개만 해도 사실은 인원이 너무 많아요.

최병두: 지금 한 몇 분 정도...?

박순종: 교회는 보통 40~50명 정도 오는데, 예를 들면 축제라던가 또는 서로 자주 만나는 연관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500~1000명 가까이 오거든요. 축제하고 이럴 때는 600명, 700명 정도 참석합니다.

최병두: 그럼 대구, 경북 가까운 경북 지역까지 베트남 출신에 한국에 와있는 분들은 거의 다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박순종: 그건 이네예요. 1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보건데, 베트남 친구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많으면 2만 명,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 이주민이 대구에 2만 5천, 경북에 4만 5천 전체 7만이 있는데, 중국 출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국 사람보다 베트남 친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사용한 이후,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이 저하고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최병두: 혹시나 또 예배를 볼 때면 한국말로 하고 베트남어로 누가 통역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박순종: 찬송가, 기도, 신앙고백 다 베트남말로 하고, 어쩔 수없이 제가 하는 거 설교 한국말로 하는 데 파워포인트로 바로 번역이 나가고요. 번역이 바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이 글자를 빨리 읽느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노동자들은 글자를 보여주면, 그 자체를 꺼립니다. 제가 보니까 의사소통 정도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30 퍼센트, 많이 되면 50퍼센트...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김연희: 근데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베트남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나요?

박순종: 대부분 고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봐야지요.

박순종: 높은 편 아니에요?

김영경: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김현주: 서남아시아쪽은 약간 학력이 높고요, 베트남 노동자들이... 근데 물론 평균으로 보면

박순종: 다 고졸이라기보단 중졸은 가끔...

김영경: 근데 궁금한 게요. 베트남은 분단되어 있다가, 지금은 남과 북이 결합을 했잖아요. 근데 주로 어느 쪽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 지 궁금하네요.

박순종: 요즘은 아무래도 북쪽 출신이 많은데, 호찌민 쪽 친구들은 따로 그룹이 있어요. 호찌민 친구들은 재밌게 잘 노는데, 남쪽 지역 출신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요. 한 달 150만원 월급 받으면 160만원, 170만원 지출합니다.

이희영: 남쪽의 특성이 조금 있는 거 같네요.

박순종: 제가 베트남 친구들에게 '저금을 해서 결혼을 하고 집도 해야 하잖아'

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그걸 왜 그러냐고 우리 아버지 집 있던 말이야. 내가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데 왜 내가 저금을 해 가지고 돈을 마련하라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최병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인가요?

박순종: 오히려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게.

최병두: 아 그래요?

박순종: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일하면 내일 먹을 것이 나오는데 왜 걱정을 해서 저금을 하느냐 말이야.

이희영: 낙천적 자본주의의 사상이라고 할까?

김영경: 제가 잠깐 여쭙보고 싶은데, 어쨌든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공동체인데 거기서 목사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어떤 선교를 포함해서 생활상으로 어떤 문제들에 더 관심이 가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순종: 제가 최근 무척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귀국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하노이 선교센터’라는 모임이 있는데, 귀국해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인원이 점점 많아져 가요. 200~3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모이면 60~70명 정도 옵니다.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모임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 귀국해서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 친구는 단 1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가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물론 다 알고 있었습시다. 다 알고 있었는데 지난 가을 방문했을 때 유독 그게 왜... 그런지. 하여튼 집에 돌아가서는 한 명도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해서 2015년 계획하면서 생각하기는 신앙 교육을 더 열심히 시켜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마음은 그런데 살다보니까 또 잘 안 돼.

최병두: 박순종 목사님은 본래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목적을 신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나 또는 마음이나 삶이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에 두지 않았나요?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 의욕과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데 자꾸 종교적인 관심을 앞세우려고 하니 ...

박순중: 종교인 목사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최종목표로 교회오너라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챙기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에 조건을 달아서 안 된다. 교회 오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선교관이다. 조건이 아니고 지금 이 친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것 자체를 해소시켜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가 이미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한다. 그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일 년 또...’

김영경: 그런데 제가 박순중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거꾸로 이 분들은 종교적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교회가 보이지 않게 그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와서 서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뿔뿔이 흩어져서 노동을 하다가 만나서 다른 방식의 힘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어쨌든 본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순중: 예, 그런 역할은 있겠지요.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면, 뻔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교회에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2번... 이렇게 했는데 답은 3번, 4번에서 나오는 거지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요청하기 위해서... 그게 1,2번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4~5번째 들어가면 고마워요. 4~5번이라도 들어가면 고맙고요.

김영경: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도움은 교회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최병두: 자 그러면은 김현주 소장님 말씀도 한 번 들어봅시다. 지금 하는 활동에 어떤 목적의식이나 다른 특성이 있는지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현주: 저는 목사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저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하여튼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네팔 노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필리핀 노동자도

말씀 하셨는데 필리핀 노동자들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어쨌든 자국의 특징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센터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목적은 아니고 ...

성서에 있다가 경산에 오게 된 계기는, 당시 지하철이 없을 때라서 경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계속하다 보니 경산 쪽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하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어쨌든 일요일 하루 쉬는데 경산 지역에서 대구까지 오려면 당시에는 지하철도 없었으니까 1~2시간 씩 걸리는데... 그래서 경산으로 옮겨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성서에 있는 식구와 동지들한테 나는 경산에 갈 거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일 년 동안 사전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

당시에 저는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지원활동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구요. 그걸 우리는 주체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인적인 소박한 꿈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을 이주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를 오면서 경북 일반노동자협동조합하고 만나서 이주노동자 주체적화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 헛수로 따지면 7년쯤 되는데, 아직 그것은 여전히 꿈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올해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면 경산에 올 때의 생각은 어쨌든 지역 운동과 이주노동 운동이 만나는 것, 그리고 지역 사람들과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산을 중심으로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주지역이주노동자센터, 그리고 앞으로 제가 2~3

년 뒤에 그렇게 할 생각인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주노동자센터 이런 한 세 개정도 이주노동자 거점을 만들면 제가 하는 역할은 최소한 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경주는 이주노동자센터가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경산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노동자 중에 한 명은 저한테는 뼈저린 경험이고 한 편으로는 좋은 교육이었는데 셈이지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주노동자가 5년 동안 일요일마다 센터에 90%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이 일요일 날 센터에 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제 그 이주노동자들은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한글 교실 교사도 하고, 이주노동자 상담도 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노동조합 얘기만 꺼내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집회도 열심히 나갔어요. 우리는 이제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겠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부는 돌아가서 지금 베트남에서 NGO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주노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저한테 계속 고민이지요.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어쨌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나라별로 소통구조를 가지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은 하되 그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이주노동자 미팅을 하는데, 나라별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전체모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사를 결정하고 현실에 반영해야 하니까... 주로 문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센터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주노동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개최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노동 상담하고 이제 한글 교실 교사를 해보도록 하려고... 지금 순번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되든 안 되는 올해는 어쨌든 경북 노동조합하고 의논했던 이주노동자조합원을 저희들 표현으로는 조직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표현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조직화는 아닌데... 조직화라는 의미에는 사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노동자라는 게 무엇인가, 노동운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주체의식을 갖고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고 참여도 해야겠지요. 노동자도 자기성취감을 갖고 고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되도록... 어쨌든 올 한 해는 이주노동조합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보는 일에 주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또 시행착오를 겪을 그럴 생각입니다.

최병두: 전체 모임을 하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김현주: 편차가 많아요. 어떤 달은 10명, 어떤 달은 100명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는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질적인 교육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퇴직금 계산하는 교육 이런 거 하면 많이 오고, 그때마다 달라요. 우리 센터의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연인원으로 치면 많게 잡으면 2천명, 적게 잡으면 천 명 되니까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월 모임 할 때 평균 잡으면 30~40명 정도 참여합니다.

최병두: 전체 모임할 때 여러 국가의 출신들 노동자들 왔을 때 자기들끼리는 의사소통이 좀 됩니까?

김현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브리핑을 하고, 국가별로 앉아서 통역도 하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도 묻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모으는 방식은 국가별로 모으는 방법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건 잘 안 되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경: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목사님은 선교활동을 하시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많이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반면 그렇지 않은 현실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소장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게 이주노동자로서 같은 입

장과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데 센터에 열심히 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이야기가 나올 때 거리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현주: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평생을 노동자로 살려고 한국에 온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거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면 자기 삶의 정체성을 달라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 혹은 현재 자기 고향에서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걸 선택을 했다고 보아야지요. 예로 우리나라에서 과거 독일에 간 간호사분들은 조금 다르지만, 석탄광부로 일하러 간 분들은 광부로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거든요. 돌아와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거 같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방글라데시하고 네팔을 돌아왔을 때는 당시에는 2003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귀국을 했을 때예요. 얼마 전 그런 이주노동자를 만나고 왔는데... 자국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노동운동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맥락 속에서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에서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많이 만나고 왔어요. 저한테도 많은 자극이 되었지요. 이제 어쨌든 나태해지거나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그렇게 활동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한국에 와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경산에서도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6개월을 쉬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아까 베트남 노동자 얘기도 했었는데 가면서 일부러 그런 활동가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해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평범하게 사는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결국은 그 분들이 돌아가서 노동자의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닐 바에는 결국은 아까 이야기 했던 데로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가치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

게 되는데 ...

어쨌든 이번에 가서 새로 알게 된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들은 돌아가서 작은 가게지만 사장님이되기도 했어요. 마을 공동체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을 새로 느끼고 왔지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노동자의 정체성을 강조하겠지만, 또 돌아가서 이 분들이 사는 삶에 대한 배려나 고민 이런 것들 아울러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제 역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을 동안에는 이 분들이 노동자 정체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누군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거나 그런 계기가 주어지면, 이 분들이 돌아가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취지로 지난 번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굳이 말하면 역할 분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역할과 목적, 보편적 가치와 특수한 가치

최병두: 예, 제가 보기에는 역할분담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단체의 기본 목적이나 개인 활동가로서의 실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의 한편으로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특수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즉 보편적 가치와 특수한 목적 의식)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김현주: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최병두: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실천은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에 따라서 활동하지만 궁극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영경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떤 의식,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시는지요...

김영경: 저는 아까 박순중 목사님이 저를 약간 오해하신 거 같아서 해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다문화연구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문화 연구를 하고보니 공동체별 격리가 심화되고 나뉘어져있는 듯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연구하는 건 주로 결혼이주자니까 물론 그 안에 이주노동자도 있긴 해요. 저는 5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자들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냥 사실 거기 가고 안 가고는 자율적인 문제지만, 왜 안 가는가 했을 때 거기 프로그램이 딱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에게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분도 있고요. 1년치 한글을 시작하면 중간에 들어가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년 이상 거주한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적응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이 중첩적인 공동체에 가입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민족공동체면서 가상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가족의 공동체의 일부이죠. 그래서 이런 중첩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삶을 유지하고 잘 살아가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격리가 아닌 통합적 문화를 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국적을 취득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시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한글 교육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암초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점차 보수화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보수와 진보,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편중되는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으면서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요? 제 목적이 무엇이냐면 문화통합 이후에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들이 되는 거예요. 투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르게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에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저는 목표로 삼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사는 다른 민족 공동체와도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족공동체와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공동체 분들도 같이 인사하고 데리고 오세요.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합시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면 이주노동자 분들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맥락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귀에 번쩍 뜨이는 게 인도네시아 분들 아시는 분 계시죠. 베트남 분들 소개를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자 사이에 교집합을 찾자. 그리고 한국인 마을 사람들과 이들의 교집합을 찾아나가자 그래서 같은 교집합에 프로그램을 시도해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가요를 부르면서 필리핀적 정서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요 안에서 가사에서 이들이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요소를 뽑아내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노래하는 건 다 좋아하거든요.

박순종: 당연히 소장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베트남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거나 중국친구하고 적대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모임을 자기들 속에서 원만하게 편안하게...

김영경: 그게 기초가 되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필리핀 공동체 모임이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박순종: 같은 국가 출신들 안에서...

김영경: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 주제가 너무 많아요. 들어가 보니까... 저는 지금 ‘심봤다’할 정도로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꿈을 꾸고 있죠. 아 오늘 이런 논제로 연구를 해 봐야겠다.

이희영: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필리핀 공동체 분들이 연구소에 많

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구소에 몇 분들이나 와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김영경: 지금 제가 하는 활동은 초기단계이지만, 자기들 공동체가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 간에도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해서 다양한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 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외부 연결성이 매우 낮아요. 연구소 구성원이 되어야지 연구소 프로그램을 가동하기가 쉬운데, 자기들 공동체 내부의 연락망을 주로 이용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는 인원은 대체로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무슨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보통 30명 정도는 와요. 항상 오는 주요 멤버들은 30명 정도 되고요. 저희 경산 공동체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계양동과 사동은 경산에서도 약간 빈곤한 층이 사는 곳입니다. 주거비나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안 드는 지역이라서 결혼 이주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연구소를 마련하게 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김현주: 계양동에 베트남 노동자들도 많습니까.

이희영: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보려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김영경: 제 친구들이 다 대학에 강의를 하거나 교수님들이 많아서 저는 교육을 한 차원 높게 시작을 하겠다고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법학 전문교수는 헌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되려면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국가의 주체가 국민인데 국민의 자격은 헌법을 알면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헌법강의, 그 다음에 한글교육은 일단 우리가 드라마 한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다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눈빛과 언어의 맥락이 어떠한가에 대한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주제별로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주제로 하니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래교실인데, 가요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이해'라고 해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들하고 처음에는 모국어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애들이 학교에 가면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 언어를 하니까 점점 거리가 멀

어져서 중학교 가니까 완전히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한국 교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각 과목 조금씩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1학년들을 이런 걸 주로 해요.

이희영: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연구소는 필리핀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지만 어쨌든 지향은 필리핀 공동체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대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전체 열려있는가요?

김영경: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 분들이 민족 공동체 성격을 띠니까 모임 그 자체에 목표를 두고 많이 오더라고요. 때문에 약간 고민이 생겨나요. 도무지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이웃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폐쇄적이죠. 그래서 우리지역 상권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이용해줄까. 그래서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들과도 조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영: 그러면 아까 그 프로그램에는 필리핀공동체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참여하시나요?

김영경: 예, 지금 캄보디아출신 두 분 오세요. 근데 점차 확대를 좀 하려니까 힘들어요. 인도네시아분들이나 베트남분도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오는 편이에요.

이희영: 그러면은 제가 제 방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시민을 위한 그런 것으로 봐야하나요?

김영경: 예, 주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김현주: 아까 필리핀 노동자들을 말씀하셨는데, 필리핀 노동자들은 이제 제가 쪽 만나게 되면 알거든요? 처음에는 어쨌든 뭔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는데 잘 안 되다가, 경산성당에 정홍규 신부님라고 있는데 그 분에게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정홍규 신부님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많이 했다가, 신부님이 가시고 나니까 또 어려워졌고... 거기 체육공원 옆에 있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안흥사라고, 이 곳에서 지원 활동을 하니깐 거기에 갔었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최근에 진량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도 몇 번 와서 이런 저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저의 입장으로, 당신들이 하는 활동을 지원은 하겠지만 여기는 필리핀 사람들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곤란하다고 잘라 말했지요.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필리핀 분들은 딱 자기들만 지원하는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하여튼 좋은 관계는 맺되... 그러다가 경산 공동체를 만난 것 같은데 그걸 계기로 좀 더 확장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 이주민의 삶, 이주민의 요구

김연희: 세 분이 각자 다른 일을 하시긴 하지만 결국은 오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사회 경제적 적응을 돕는다든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순중: 제가 명함 뒤에 문화 행사, 인권, 노동, 병원 진료, 쉼터, 한글 교실 등 뭐 하여튼 박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없는 듯 보여도, 한꺼번에 거의 다 있어요. 전반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할 수 있는데 까지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어려운 게 무엇이 있을까? 물론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제일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연금퇴직금, 산업재해 이 건이 저희 사무실에서 맡고 있는 건만해도 일 년에 350건 내외.

그 다음에 병원 가는 문제가 50건 정도. 그렇게 되고... 그 외에도 쉼터나 한글교실... 한글교실을 두 달 전에 개소했는데 이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는 교회 예배 마치고 한글 교실 하면 좋겠는데... 교회는 안 하고 한글 교실만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인 어려움과 힘든 게 있는데 저희가 도와주려고 할 때 의사소통 문제가 제일 큼니다. 저희 통역간사가 다쳐서 통역간사 한 명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30%만 남아있을 정도로 다 스톱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통역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고...

최병두: 혹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한글을 배워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없나요?

박순종: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자기가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 직원으로 통역간사가 있어요. 저희 통역간사는 바쁠 때는 거의 반 죽습니다.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자기 야간 근무하면서 전화해 가지고 언니 나 월급 어떻게 됐어? 이렇게... 통역간사가 화가 나서 '니 지금 몇 시인데 어디다가 전화하냐고' '언니 나 잠 안자는데...' '니 잠 안자는 건 좋지만 나는 어떻게 하냐고'... 하여튼 통역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주친구들에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거의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차별하지 않도록, 더 높지도 않고 더 낮게도 않게, 똑같이, 산재사고를 당했으면, 폭행을 당했으면, 임금을 못 받았으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이 우리가 해주는 그거예요. 이 수준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높은 게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받아 가냐고, 뭐 이렇게 많이 퇴직금을 주느냐고 불만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파지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인권이나 권익이나 병원이나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요.

김현주: 경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경산이 정거장이다.' 그러니까 경산에 오래 생활한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경산에 오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인프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진량에는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진량공단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경산이 부채꼴 모양이거든요. 하양, 와촌에 있는 사람들은 진량에 올 수 있는데, 남천이나 남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량에 접근하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구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량에 있는 이주노동자조차도 진량에 있는 가게가 열악하니까 대구로 나가요.

모든 것들이 다 대구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거지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많이 불리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국에서 누리던 생활의 기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경산 지역에서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수도권에 예를 들면 안산 같은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동사무소나 간접 기관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밀집 지역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미에 그런 예를 드리고 싶은데, 이주노동자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연희: 시급한 인프라는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김현주: 당장 생필품을 준비하는 데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보제공도 돼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구멍가게거든요, 당장 통역도 있어야하는데 그나마 우리 활동가 분이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이어서 영어로라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에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

김연희: 최소한에 또 뭐가 들어가죠? 정보제공...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와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김현주: 이주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공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경산시만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시청이나 관련 기관들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김연희: 시청의 정보... 같은 거요?

김현주: 시청의 정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고용센터를 간다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대구로 나가거든요. 고용지원센터가 대구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바꾸잖아요, 직장을 바꾸려고 하면 대구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서 모든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가 있는 지역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곳에 있다가도, 가능하면 다른 지역 특히 밀집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김연희: 제가 자꾸 여쭙보는 이유는 소장님은 아시지만, 독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전혀 감이 없을 수도 있어서 차라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해주시면 독자들한테도 좋겠고... 아니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보는 거예요.

김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을 위해서는 동사무소가 구석구석에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주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잖아요? 또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지요. 특정 지역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산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공간이 없습니다. 대구 의료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문제가 생기면 또 대구를 찾아가야 돼요. 물론 한국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한테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것은 이주민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한국 사람과 동등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에 걸맞는 어떤 기본적인 수준은 돼야한다는 거죠.

최병두: 특히 이런 부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혼이주자를 위한 다문화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고용지원센터라던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원기관은 전국에 몇 개 안 될 거예요.

김영경: 그런 점에서는 공단 안에 진료소가 있는가? 또는 진료소는 어느 쪽에서

접근이 용이한가? 이런 분포적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네요.

김현주: 그렇죠. 예를 들면, 경산보건소가 지금은 이주노동자 진료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보건소장님이 마음을 여니까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아프면 지역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옛날에 경산 지역에 있는 공립 보건의 중에 한 분이 보건소의 지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했지요. 본인이 방문 진료를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영천과 진량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아주 많이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병원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지요.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 예를 들지 못하는데 툭 빼놓고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뭘 필요로 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없는 거지요. 전혀 없으니까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지방 소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의료 지원 문제도 이 분들이 아파서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면... 산부인과를 예로 들면 대구의료원에 가는 분들은 미등록 노동자들입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병원에 갈 경우에는 애를 출산한다 하더라도 30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구의료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주노동자들 가운데서 출산을 위해서 대구의료원을 가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경산산부인과에서 출산지원을 하는데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비용을 한 150만원 정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전에 경산병원에 그런 일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제안을 했거든요. 하지만 잘 되질 않았지요. 지금은 거점 병원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에 가느니 대구에 가는 게 낫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의료 인프라 문제가 심각해요.

아까 이유로 다시 돌아가면 공동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가 별로 뭔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도 경산에는 없습니다. 경산을 중심으로 보면, 성서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리랑카 이

주노동자들이 가끔 법회를 하는데 진랑에 만들어놓은 진랑이주노동자의 집을 이용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비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성서에 있는 스리랑카 템플에 가요.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여긴 템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래서 추모집회를 할 때는 거기서 하는데... 만약 공동체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지금은 진랑이주노동자의 집을 이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만 이런 시설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최병두: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의 다문화 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여권이나 비자발권과 같은 행정적 지원, 그리고 주거나, 의료, 교육 분야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이런 분야들의 지원은 언어 소통을 위한 통역이라든지 주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설 등이 제공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에 대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각 단체에서는 이주노동자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들, 예로 주거문제나 작업장에서의 어떤 불이익, 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불화 문제 등, 혹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지원 사례들은 없는지요?

김현주: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중교통이 없는 게 가장 불편한 거지요. 가족 관계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이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인데. 아까 제도를 개선할 이야기했는데 이주노동자는 가족동반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가족 간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주노동자는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가족이 있어도 떨어져 삽니다. 혹시 같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한쪽은 미등록이고, 한쪽은 등록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같이 사는 경우에는 어쨌든 비자있는 노동자로 사는 걸 포기해야 결합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경산 지역은 특히 진랑 공단은 그렇습

니다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워낙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한국말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진량공단에 들어가려고 하면 840번 버스를 타고 진량공단 안으로 들어가면 걸어서 30분 내지는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닌다는 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의 개선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바뀐 제도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에는 버스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주노동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물론 최근 이주노동자들도 공장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지만,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거든요.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만 텅텅 비어서 왔다갔다 해요. 계속 요구를 하니깐 출퇴근 시간에만 공단 운행버스를 하는데 별로 실효가 없는 버스입니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퇴근 이후에 볼 일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최병두: 예, 자 그러면 김영경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김영경: 저는 기간이 짧지만 제가 본 거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이주자들을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정말 돕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주여성과 그 남편들은 참 이상한 습성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가동하거든요. 돈을 전혀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요리 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 분은 그냥 오시지만 재료비는 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김장을 했는데 재료비가 몇 명이 될 거냐고 물어보니까 15명이 올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강사 분께 사오라고 했는데 강사 분이 사왔는데 처음에 절일 때는 한 5명이 왔더라고요. 리스트도 주지 않고 가서 5명이 와서 절이고 가면 그 다음날 버무리는 건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고는 다 통에 담아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표자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단을 작성해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을 끝까지 참여하도록 해라. 이게 소통

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은 응당 재료비를 왜 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최병두: 아니 그들이 갖고 가면서도요?

김영경: 예... 다 가져가면서 그냥 모였다가 파티를 하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의, 교육 이런 데에 관한 관념이 부족해요. 공공의 어떤 것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립박물관의 강당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이 분들은 빌리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제가 가서 사인을 하고 빌려줬는데 그 강당은 앞에 무대가 있고 의자가 붙박이로 되어 있고 깨끗하게 써야하는 건데 그 분이 일요일 날 하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다 돌봐줬어요. 영상과 조명도 하고 마이크도 가져다주고 했는데, 마치고 나서는 입구 로비에서 이 사람들이 먹잖아요? 뷔페식으로 먹으면서 시립박물관 직원분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전혀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커피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 적음 5년 이상 된 분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같이 살려면 그런 생활양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강의하시는 분이 오셔도 봉사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하게 받기만 하려는 습성이 있고 또 배타적이죠. 우리민족이 아니면 안 돼. 또 우리와 같은 관점의 공동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에 대한 도움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돼요. 어느 정도 수위로 도움을 줄 것인가? 무조건 연민의 정이라든지 동정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한 남편들의 삶의 질도 사실 이주여성들과 결혼하면서 하향화된 경우가 많다고 호소를 해요. “한 번도 된장국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든지, 그리고 사실 여성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등 나한테 이 남편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제가 관찰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남편들이 그 분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주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먹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연구할 때 시각과는 완전 180도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의 남편들의 정체성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이런...

최병두: 한국인 배우자를 만났으면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 이주자를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듯 합니다.

김영경: 예, 제가 그런데 거기에 개입을 해서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에게 적응하는데 뭐 가족관계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작 가서 봤을 때는 이 남편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남편들과 결혼해서 살다가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필리핀에 분을 다시 모셔 와서 결혼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가 막연히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약자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르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최병두: 그 부분에 대해 물론 김영경 박사 입장에서 봐서는 남편이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요구사항이 전부 충족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남편 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하겠지요.

김영경: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필리핀 여성들이 남편들의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교집합 부분을 찾아내는 일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남편들이 제대로 직업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늘 우리 연구소에 보면 그 분들이 벼룩시장이나 뭐 그런 걸 들고 오셔가지고 1일 체크해서 가시거든요. 그런 반면에 여성들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가동이 되는데, 남편들이 그러다보니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이 없어서... 그래서 여성은 차가 있는데 남편들은 걸어가요. 자기들끼리 또 모임이 있다고 가버리면 남편들은 거기서 집까지 걸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종종 보면서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 국적별로 다른 문제 또는 같은 문제

최병두: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특성과 문제점들을 한 번 짚어봤는데요. 그러한 특성이나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또는 우리 지역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신 국가들의 문제이거나 또는 그 분들의 개인적인 배경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쭙보고 싶거든요. 예로, 중국 출신 이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 생활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반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은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낀다던지 하는... 즉 우리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분명 반영되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다면 분명 그 국가의 특성도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배타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느 출신 국가의 이주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체로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어떤 국가 출신들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혹시 이주자들의 출신 국가별 또는 개개인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이희영: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리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주자들의 커뮤니티를 본다는가 이주 일반적으로 출신국가 커뮤니티가 힘을 갖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라든가 노동현장에 충분히 자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든가 병원 의료시설이 있으면 굳이 본국 출신의 사람들끼리 만날 필요가 없는데, 본국 출신의 커뮤니티가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정보와 그 다음에 상호보완활동이 사실은 자기가 있는 지역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이주 집단 안에서나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고...

조금 더 나가서 제가 만나 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 대구는 상대적으로 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지는 서비스가 있고, 또 성서공단 주변으로 모여 있는 그런 밀집성 때문에 갖는 장점도 있지만 경북 지역은 공

간이 굉장히 넓고 이주자들 또한 다문화여성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너무 떨어져있기 때문에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공적 서비스와 복지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 NGO에서 그 모든 일을 개인에게 필요한 혹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교통문제까지도 지원하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소장님이 구멍가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중간 다리요.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김현주: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최병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지역사회에서 이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가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주자들 각각의 요구사항이 각자 출신국가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다양한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이주자들을 함께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주자들의 개별 출신국가들의 특성을 넘어서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주자들 각자 나름대로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박순종: 아까 이주민들의 문제들에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일단은 이 친구들이 저희들을 찾아오는 제일 큰 요청,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임금, 퇴직금, 산재, 사고,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병원 가는 문제인데, 병원 가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심각합니다. 그 중에 등록, 비자가 있는 친구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든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 따른 차등적인 비율만 돈을 내는 거지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대구의료원까지 안 가도 된다고. 문제는 미등록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통역을 항상 데리고 가야하며 움직여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보험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주요한 이주친구들이 많이 가는 주요한 병원이

나 관공서 같은 데는 다문화가정들의 친구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통역 서비스를 배치시키는 것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이주친구들은 생각보다 군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는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김현주 소장님처럼 아는 지역 병원에 의사선생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게 가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멀면 아주 곤란하고, 그리고 또 그 병원에 집중적으로 몰리면 의사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한 거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전체에 지역 속에서 개별 병원들을 전부다 협약관계를 맺어서 이 친구들 돈 안 내는 것 아니고, 한 번 갈 때 5000원입니다. 한국사람과 똑같이 해주도록 이제 병원지원이 있으면, 이게 우리 상담 건에도 병원에 가는 상담 건이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아픔이 있다는 거지요.

김연희: 화상통역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박순종: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전화 통화로 몇 번 하기는 해요.

김연희: 물론 바로 통역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희 경북같이 굉장히 넓게 퍼져있을 경우에는 공공시스템 안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요?

박순종: 생각보다 이들 가운데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로 오고, 결혼해서 오고, 나이가 20대에서 한국에 입국을 해가지고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 아기 낳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엄마, 아빠 없이 결혼합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아기를 낳고 있는데 베트남 친구들은 애들을 다 집으로 보내요.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한동안 베트남 친구들이 애기를 집으로 보내는 게 부모님 엄마나 아버지하고 같이 안 가면 집으로 안 보내주는 것 때문에 대사관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서 힘들었는데 베트남 대사관은 풀렸는데, 중국이 스톱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일단은 애들이 한국에서 자라나는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국적이 한국이에요. 이주노동자 가정의 경우 애들하고는 다른 국적자체가 외국인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한 번 이야기했습니 다만, 베트남 친구들의 애들은 학교 가는 것, 어린이집 가는 것이 매우 어려

워요. 다른 다문화가정의 애들이나 한국 가정의 애들은 저소득층으로 비용을 줄여줘요. 면제해주고,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데 유독 진짜 힘들다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외국인 애들한테는 30만원을 다 받는 거예요.

김현주: 그래서 지금 아동교육청에 발의 중이잖아요.

박순종: 한국 사람은 돈 안내도 되지만, 이주자의 아들은 30만원 내라고 하니 까... 거기다 돈이 더 추가가 되요. 간식비, 교재비 해가지고... 만약 애가 둘이라고 하면 버텨내질 못해요. 그래서 애를 어쩔 수 없이 본국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도 늦게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애가 왜 부모하고 떨어져야 하는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아야지. 애가 필요한 건 엄마, 아버지 돈이 아닌데... 하지만 애들을 거의 다 집으로 보냅니다.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불만이 폭발지경이에요.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 안 받겠습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 초등학교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불안감이 많아요. 자녀교육과 관련된 것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결국은 자녀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병두: 조금 있다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출신 국가별로 생활방식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관한 문제가 실감나지 않는 것은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 신분인 상태이거나 다른 조건으로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다 보면, 한국생활에서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길텐데요. 앞서 국적별로 배타성을 가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배타성을 좀 더 긍정적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로 먼저 온 이주자들이 뒤에 오는 동일 국적의 이주자들에게 자신의 사회 적응 경험을 이야기 해주고, 또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필요한 여러 지원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먼저 온 이주자와 뒤에 오는 이주자 간에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의 다문화과정에 대한 현장 답사에

서, 이미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한 올드커머들이 최근 일본으로 이주해 오는 한국인이라든가 다른 국가 출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로 한국인 2세, 3세들이 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선 국적 공동체인데 하지만 같은 국적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이러한 공동체적 활동이 국적을 뛰어넘어 다른 국가출신 이주자들에게도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출신국가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개별 이주자들은 이주 초기에는 같은 국가 출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점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다른 국적 출신 이주자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출신 국가의 특성과 문제점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단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개별 이주자들은 지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출신국 적별로 배타적인 주거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문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김현주: 저는 뭐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전반적인 제도적인 인프라가 부족한거죠.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안 되어있는 거죠. 제도 자체가 결혼 이주여성은 조금 다릅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통합과 배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여성은 어떻게든 한국사회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각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는 사회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한국사회로 통합하는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기한이 되면 해지하고 축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쓰니까...

그동안 사실은 들어오는 유입국가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조차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나라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조차도 없고요. 국가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 각각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로 임금 문제, 체벌 문제, 그 다음에 산재 문제 이런 건데 월급 해결하는데, 산재 처리하는데 국가별 특성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조금 더 미시적인 문제들, 생활상의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자국의 독특성을 가지면서 생활에 정착하고 이런 문제를 그런 여지가 생기면 우리가 고민이 넓어지겠죠. 나라 별로 특성이 굳어 있다고 말하면,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분이나 베트남 분들은 한국말을 습득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나라 언어를 연구하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네팔로 본다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김연희: 왜 그런 거 같아요?

김현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어적인 특성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트남 노동자들은 5년 넘어가도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통역이 있어야 돼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고민만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지만 개선 노력은 사실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김연희: 오히려 저는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여성들도 와있는 기간에 비하면 한국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게 자기 필요성의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필리핀 분들도 한국말이 서툽니다. 그런데 필리핀 분들은 조금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따갈로그어도 영어를 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주로 필리핀 분들은 가톨릭 기관에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필리핀이 그 차이를 느끼는 데에 동의를 하는 데 거의 이렇게 자국민들끼리만 모이거든요. 어디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가면 필리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잘 안 어울리고요. 그러다보니까 고착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영어를 쓰니까...

김연희: 영어로 원어민 교사의 기회라든지 통역의 기회가 많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한국말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영어를 하는 자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유리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김현주: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종: 제 생각에는 어떤 국가별 특성이 국가별로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별로 안 해요. 문제라기보다는 국가별 특성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 공동체성이라든가 서로 간에 상부상조의 정보 나눔이나 그런 게 더 강화되고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 다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별 공동체가 강화됨으로 인해 예를 들어 ‘우리 베트남인 교회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중국 친구들을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그렇지는 않아요. 이 친구들이 같이 만났을 때 ‘우리는 한 팀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같이 연대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영: 또 이주노동자라는 공동커뮤니티에 속하니까...

박순종: 맞아요. 그렇게 한 팀이 되는데 출신 국가별 특성 때문에 이게 단점으로 문제가돼서 나타나는 건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현주: 그런 건 있지요. 국가별 특성이라기보다도 종교적인 특성들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쥘 처음에는 저희들도 센터 내에서 술을 같이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 이주노동자들은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대니까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한 달 있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 만든 술 안 먹고도 잘 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술 안 먹으면 사실 못 놀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술 안 먹고도 잘 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람들과 친술한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술을 먹습니다. 먹고,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오면 무슬림 국가 출신들을 위해서 따로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중국 사람들 하고 베트남 사람들하고는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먹고 그렇게 노는데 그런 종교적인 특성을 우리가 배려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디 놀러갈 때마다 치킨을 사가는 이유가 힌두교 쪽은 소고기 안 먹고, 무슬림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저는 닭고기만 질리도록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봉활동가들한테는 주로 돼지고기밥 집

에 가는데 단순히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은 있어요. 분명히.

## 이주자 정착과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

최병두: 그럼 좌담회의 마지막 주제로, 그 동안 활동해 온 경험에 바탕을 두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특히 국가적 또는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이주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나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들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또는 새롭게 제시를 해야 될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대안적 방안이나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고향으로 귀환을 해야만 하는데, 귀환 이주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생활과 귀환 과정에 관하여 어떤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혹시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그 한계와 개선방안 또는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경: 저는 결혼여성이 이주노동자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슬프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핀 여성들만 많이 접해봐서 이 분들이 생애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특성이 굉장히 결집되는 걸 봤는데... 새로 필리핀에서 오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분들이 우리나라 삶에 적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 우리 연구소에도 오라고 해서 우리 같이 상담도 해요.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 저런 부분이 유익한 부분이구나.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웃이면 혈족... 1차적 관계... 이 분들은...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보니 나타나는 게 배타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 이주자에 대한 정책은 부처 간에 흩어져 중첩이 되는. 그래서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실제 문제예요. 저는 이 분들이 동사무소나 시청에 뭔가 이용할 때 매뉴얼이 별로 도움이 안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 연구소에 쪽 앉혀놓고 실제 이 사람들이 직접 해보게끔 하는데, 이를 테면 박물관에 강당을 빌리는 것도 이 분들한테는 허용이 잘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누가 책임을 질 건가. 하면 힘들어해요. 그래도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 것도 매뉴얼 자체가 힘들어요. 매뉴얼교육이 필요해서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이 서로 소통이 돼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거 한 가지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 다른 도움을 못 받는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로 놀러 가는데 애를 봐주는 것이 정말 도움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센터장이 애를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물어보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에요.

박순종: 한국 사회 정책 지원을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양육,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고, F6, 가족, 국제결혼 가정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애기하고 같이 살거나 또는 이혼을 안 했지만 애기 아빠가 국적을 사인을 안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지원하는 두 가족이 있는데... 애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친정엄마를 오시게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줘요. 첫 번째 가정은 ○○엄마인데 ○○가 5살인데 자폐증이에요. 자폐증인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공장에 일하면, 아빠는 월셋방에 전전하고 살아요. 일도 없고 아빠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 둘 다 베트남 가라. 보기 싫다. 가라. 이혼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따로 나와서 살면서 애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요. 다행히 가까이 있어서 다니고 있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5시 반이 되면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엄마는 그 시간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다가 바로 데려다줬더니 공장에서 한 두 달 있었는데 아무래

도 안 되겠다 애 좀 정리를 하고 오라고 했답니다. 휴식이 아니죠. 해고죠. 자기가 너무 안 되니까 친정엄마 좀 초청해서 하게 해달라고 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이 사람이 서류를 해가지고 한국대사관에 접수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보고 말하기를 남편이 있는데 왜 당신이 초청장을 남편이 안 내느냐? 사정이 이렇다. 그럼 이혼을 해가지고 해라. 아니면 남편이 없어졌다고 행방 불명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접수증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방 불명 신고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월셋방을 전전하며...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걸로 다음에 변호사님한테 가서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도 한국대사관에 항의를 많이 했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안한데 나 이혼 안 한다. 우리 애가 나중에 주민등록 등본을 뺐는데 아빠가 없으면 얼마나 그럴까 나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을래요.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보건데 왜 아빠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그런 걸 왜 요구하는 지... 상황을 이 정도 설명하면 아빠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든가 아빠가 여자가 바람 났다고 나갔다고 하든지 싸움을 했다든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기 엄마거든요...

김영경: 그 부분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적인 건데 국적취득에 대해서 남편이 개입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인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반대로 우리 국가에 법이 문제인데,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의 전 본국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의 범법행위 여부를 여기서 그걸 해야한다는...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이 남편의 입장에서도 너무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남편들도 꺼려하는 부분이... 확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순종: 남편의 동의 사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거는 이주 여성의 친정 부모님. 친정 가족을 초청하는 문제인데...

이희영: 국적이 취득이 안 돼서 힘들다는 거죠?

박순종: 예. 비자가... 그럼 당신이 국적을 취득해서 있으면 초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 사람이 국적을 취득했든지 안 했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엄마인데, ○○엄마인데...

최병두: 장애인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일종의 도우미가 친정어머니일 때 당연히...

김영경: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성들이 미시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엄마가 아이를 생각해서 친정 엄마를 오게 하겠지요. 우리 한국인의 삶조차 지금 대학에서 강사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정책이 ○○엄마를 생각하면...

박순종: 아니,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희영: ○○를 생각하는 정책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 능력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김현주: 그렇죠. 철저하게 그렇죠.

김영경: 제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에는 물론 거기도 비자별로 가족 초청 조건이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항상 예외조항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례,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아이가 장애가 있고 또 엄마가 혼자 살고 있고 이런 경우 비자가 F6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이런 예외적인 사정일 때는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도적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희영: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한데...

김영경: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항상 법이 그렇듯이 현장에서 바뀌가지고 법제화시키는 방식으로...

김현주: 저는 최근 인도네시아 갔다 왔던 에피소드부터 출발을 하면요. 인도네

시아에 가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동네마다 있는 무슬림 사원에서 새벽 5시마다 종 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드시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던데... 그런데 그걸 유추해서 다시 여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슬림 쪽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센터에 항상 신문지를 배치해 놓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다섯 번 기도를 하잖아요. 어쨌든 신문지라도 깔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냥 바닥에서 하지 않고... 그런데 최근 진량공단에도 이제 무슬림 기도체가 생겼어요. 이런 점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평소 생활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을 곳곳에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단순히 이게 어떤 종교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생활의 문제니까 이에 대한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겠다는 그지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거시적으로 보면 저는 시민권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허가제 문제도 E9 비자와 H2 비자가 있는데,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이제 거의 시민권에 비슷한 권리들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E9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제약은 여전히 너무 많으니까... 신분 상의 불안을 느끼지죠. 체류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될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때 그 때 다양한 제약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동포들이 우리 동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열었다면, 고용관리 시스템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땅에서 자기가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폭력적이니까 역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모든 이야기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사실은 저절로 다 해결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우회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까 말했는데 미등록 노동자들의 언어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으로 가기 전이라도 미등록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 문제를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그런 걸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

도록 한다든가 해야지요. 통장 개설 문제도 있는데, 미등록자들은 통장 개설 안 되거든요. 최근에 와서 우리가 워낙 요구를 하니깐 그나마 외환은행은 여권이 있으면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외환은행만 가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산 진량공단 부근에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일부러 진량공단까지 다녀와야 하는 거예요.

최병두: 미등록자의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는데 외환은행은 허용해줘요?

김현주: 그것도 최근에 들어선 거지요.

최병두: 그런 경우 정도가 노출되는데, 실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도 전혀 없나요?

김현주: 그것도 은행마다 달라요. 우리가 가서 강하게 요구하면 만들어줍니다. 근데 통장 만들 때마다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일이 또 있는데... 통장 만들기 위해서 가서 또 싸우고 밀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어쨌든 미등록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산의 경우,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이주노동자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제가 언젠가는 대구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지요. 유학생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김연희: 그건 저희도 있어요. 국제관.

김현주: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만들면서 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는 안 만드는 건지... 이주노동자들은 아시겠지만 일하는 중에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장을 바꿀 때는 가 있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기숙사를 전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최소한 그런 기숙사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취업노동자의 기숙사의 질도 천차만별인데 왜냐하면 사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물론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가 최소한의 비용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공단 인근에 이주노동자들이 좀 숙식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공장을 그만 두더라도 다른 공장을 구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불안하니까 우리 쉼터에도 최근에는 어디 멀리서 많이 와요. 멀리서 많이 오는데 쉼터라고 말해봐야 요만하거든요. 정말 미안해죽겠어요.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래서 어쨌든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의 시설이 마련되어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불편은 없도록 학교에서 좀. 경산시에 좀 푸쉬를 해서 공단이 제대로 굴러가려고 그러면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최병두: 그러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협 같은 곳에서 별도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냥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잠깐 머무는데 아주 짧게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김현주: 예.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김연희: 일반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공동의 기숙사 같은 게 있어요?

김현주: 옛날에는 이제 우리 70년대, 80년대 소위 말하는 공돌이, 공순이들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기숙사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개별사업주들이 만들었죠. 지금은 공단이 형성되어있으니까요 공단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이주자의 귀환과 귀환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가

김연희: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베트남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귀환노동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

박순종: 자주 갑니다.

김연희: 자주 가세요? 어떤 거를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귀환 노동자들에 대한...

박순종: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 가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하고 그동안 10년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짧게 있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이

친구들은 자기 나라에 귀국하고 나면 다시 한국에 못 와요. 요즘은 형편이 자기가 엄청난 큰 부자가 되거나 다른 그런 게 아니면 한국에 다시 못 들어 오기 때문에...

최병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박순종: 예,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거의 못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 동안 정도 들고 그런 친구들을... 친구를 잃어버리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일부러 가서 제가 방문을 하지요. 자기들 집에도 가보고 그렇게 또 귀국했는 친구들도 각자가 또 다른 곳에서 살고 하다 보니 자기들도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가면 같이 모임을 하는 거죠. 집에도 가보고...그 정도... 교회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 동네에 가서 교회에 소개도 시켜주고 데려다주고 교회에 잘 다니는 거 확인하고 그거 하고 싶지요.

최병두: 본국에 돌아가서 물론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기 쉽지 않겠지만, 한 도시 내 또는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한국에서의 경험을 서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나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박순종: 거의 기본적으로는 있기는 있어요. 조금 자기들 친구들...이제 그게 큰 수는 아닌데 예를 들면, 두 세 명이라도 동네 또는 자기 지역에 그렇게 정도는 있는데 그 정도의 협력관계는 가져요. 그런데 예를 들면 50명, 100명 이 정도 단위까지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일부러 오랜만에 한 번 만나서 같이 회식도 한 번 하고 회의도 하고 하룻배 배타리 단체관광 놀러가기도 해요.

최병두: 베트남은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잘 된다면서요?

김현주: 아니 뭐 잘 된다고보다는 제가 보고 온 거지요. 상대적으로 잘 된다면 그런 건 포장인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로 한 가지 들어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 패션을 바꿔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 계신 분들은 평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우리도 일요일 날 문을 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접근 방법의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제일 피곤한 게 연구소에서 전화 오는 것이거든요. 설문조사 하러 갈 테니까 이주노동자들 만나게 해 달라.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충상황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와서 이제 저는 다른 대학교보다 다문화연구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시민권 얘기를 했는데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 정책이 당분가는 안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배제 정책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 보낼 것인가에 대해 혈안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귀환 이주노동자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가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그냥 단속해서 추방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가서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가능 할 것이라는 것들을 좀 사례도 좋고 아니면 특정한 나라를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5년 생활 이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그런 연구들을 폭을 넓혀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동안 귀환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만 성공사례 중심이에요. 가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인도네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대학이라는 곳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귀환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 지 그리고 연구소마다 어떻게 모으는 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어서 하나의 사례로 좀 축적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희: 예를 들면 경험상 어떤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나요?

김현주: 저는 거칠게 구분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올 때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돼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돌아가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전망이 생기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데 심각하게도 두 번째 목적이 전혀 충족이 안 되거든요? 가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김연희: 그게 사실은 이상적으로 말하면 준비시켜 보내면 좀 더 희망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국의 경제상태가 많은 걸 결정하잖아요.

김현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현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길게 다 못해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이야기도 하셨는데 하노이 연구원에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진출한 큰 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단에 예를 들면 중간관리자나 기본적인 관리자로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조인을 해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지역은 우리가 다 포괄 못하잖아요. 그 쪽의 출신들 이주노동자들은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배운 한국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접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조인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례를 조금씩 축적해 가면서 그 사례가 어느 정도 일반화 될 수 있는 계기들을 열어 나간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거지요.

최병두: 그것이 결국 성공사례 아니에요?

김연희: 그러니까 자산축적을 해서 가게를 냈다라는 예를 말하는 것인가요?

김현주: 아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가보니까 카센터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카센터가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그런 인프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서로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서 가능한 그런 예제를 열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한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잘 살았다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구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김영경: 사회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있으면서 어쨌든 언어를 습득한다든가 문화적 자본을 가진 분들이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과 네트워킹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뭔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가능한 일이니까

김연희: 나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하니까

김영경: 그렇죠. 사실은 한국기업 중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나가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김연희: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 자질이 언어만 추가되면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가 본 학생들은 이미 베트남에서 한국어과를 나왔어요. 여기서 석사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가. 저는 그걸 탈북자지원센터에서도 봤는데 중국에서 한 4~5년 살다 오니까 중국어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어 학원에서 그래서 뭐 양질의 관광가이드가 된대거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한다라는 것과 중간관리자가 된다는 것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현주: 그렇죠.

김연희: 그래서 저는 보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자질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은가?

김영경: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현지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요.

김연희: 그러니까 현지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어를 좀 더 한다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기대수준을 정할 때 현실 정도...

박순중: 통역을 잘 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앉히지는 않지요. 통역은 통역이지요.

김연희: 그리고 통역과 자질을 같이 갖춘 사람들이 이미 내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안에도... 동남아 지역에도...

최병두: 어떤 의미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그 지역사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조적인 협력 조직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곳의 한국 공단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조금 더 밀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다문화 연구소가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량공단을 특정화시키면 진량공단에서 예를 들면 귀국 전 6개월 정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 안 됩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력을 못 갖추는 사람들을 포괄하라는 이야기는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한 6개월...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최병두: 아마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뭐야 하면, 귀환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개입을 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귀환한 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귀환 후 지역사회에 재정착하기 위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하여, 귀환 전에 이주자들에게 2~3개월에 걸쳐 귀환을 위한 준

비 교육을 마련해 줄 필요가 분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연희: 교육에 참여의 의지라든지 시간의 가용성 같은 건 어때요?

김현주: 아직은 그렇게 별로 절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얹는데 이제 그래서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연희: 근데 좀 미등록이든 적법한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푼이라도 버는 게 현실적인 기대가 아닐까, 3개월이라는, 6개월이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할 정도로 여유있는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맞습니다.

최병두: 그렇지만 미등록 상태로 계속 체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정도 무료 교육을 받고 본국으로 자진 귀환하여 본국의 지역사회에 재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현주: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다수이지 않습니다. 절박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동안의 한국사회가 계속 추방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시사 봤는 거는 뭐냐하면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영대에 한국어교육을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아주 초보적인 거잖아요. 그야말로 공장에서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 친구들 욕구에는 안 차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뻥 시게 일하고 또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는 걸 보니까 하루 여덟 시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뭐 사람을 죽이는 수준이지요.

최병두: 정규 학부 과정이에요? 강좌를 개설해서...

김현주: 그렇지요.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심지어는 여기서 안 되니까 대전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말마다.

김연희: 뭘 기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김현주: 한국말을 습득을 하면 어쨌든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한국말을 배워서 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가

능성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친구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서 오고 싶은데 걸리는 게 지금 하고 있는 TEPS 시험이니까 아 TOPIK 시험이니까 TOPIK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언어 습득이 필요하니까

김연희: 다시 돌아오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김현주: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자기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면 본인들이 그런 걸 투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최병두: 무료 교육 비슷해요? 수업료 다 내면서도?

김현주: 그거는 잘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돈 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비용은 자기가 내야한다고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희영: 우리나라는 아직 노동허가제도 아니고 고용허가제 수준에서의 순환공제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순환노동제도를 썼잖아요. 그럴 때 이 귀환교육을 시켰었어요.

김현주: 아 그랬었어요?

이희영: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값을 다 줬었어요. 비행기 값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워낙 이주노동자 삶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교육을 받을까 싶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런 순환교육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는 귀환교육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루 앞을 보면서 살아온 삶을 정리하면서 나갈 수 있게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문제고 또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이희영: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최병두: 특히 경기불황기에 들어서 상당히 이주노동자의 수요가 궁해서 돌아갈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3개월 단기적으로 시키고 비행기 값을 주면서...

이희영: 정착비용도 줬어요.

이희영: 그런 지역하고 우리는 역시 차이가...

김영경: 이런 걸 모델링을 하면 못 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갈 수 있는 좋은

### 조건들을 만드는 것

최병두: 실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직장에서 이들의 귀환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요구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업이 직접 귀환교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교육기관이나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영: 그런 발상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김연희: 결과,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김현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바로 옆에 고령화사회연구소도 있는데 제 생각 근데 한국사회가 거의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 제가 은퇴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는 인구가 너무나 적을 건데 통일이 되면 좀 더 이런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이런 상태 속에서는 결국 이주노동자들에 이 한국사회를 뒷받침하는 이 범위가 늘어갈 것이다. 2배, 3배로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이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배려나 우리 정책적인 지원 이런 원활한 이런 모순 내용들도 훨씬 더 잘 갖추고 좋아져 있어야 한다.

최병두: 그렇죠. 물론 귀환교육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체류권이나 시민권을 보장하여 이주자들이 최소한 자신이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귀환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귀환 이후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사항이 요구되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지역사회 취업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예로 주거생활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교육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 다문화사회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미래

최병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주자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해 마

무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더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저는 이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인권주간 때 경험이 다시 떠오르는 데요. 우리 사회는 존재에 대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문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연구소나 이런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라도 사람은 어차피 존재가 차이날 수 밖에 없는데 여전히 바깥에 나가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차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주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공장을 그만 두면 주는 게 아니라 출국하면 준다는 그런 발생자체가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창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데올로기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존재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영: 저는 같은 맥락인데 소장님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배제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시민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민으로 되어가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족성이 있는 공동체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두 가지 축이 있죠. 상징성과 자족성. 그런데 자족성을 가지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마을이 잘 되면 가정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주자들에 대한 이런 상황에 바람 이런 것들도 저절로 충족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병두: 그 말씀 고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 한 마디...

김연희: 너무 오늘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루지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많이 듣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

각하는 것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한국사회의 이런 굉장히 차별적인 제도화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한 편으로 굉장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연구자로서 목사님, 소장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네트워킹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공로를 모아서 지역 내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공간을 만들게 한다든가 등등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두: 또 다른 마지막으로...

김연희: 아무래도 이제 각자 주업이 다르니까 연구자하고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같이 갈 때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식이 계속 머리 속에 있다면 좋은 연구가. 굉장히 현장에 근거한 연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주 나가야겠다는 생각, 자주 들어서 같이 연대함으로써 지자체도 바꾸고 기업인들도 바꾸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연구소가 동네 슈퍼마켓이면 저희도 학교 안에서 동네 슈퍼마켓이에요. 그래서 연구소가 벌써 존재한 지 4년, 5년 쯤 되어 가는데 이런 모임을 예전에 자주 못 가졌다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좀 더 지역사회와 현장하고 밀접한 그런 연구를 하고 또 변화의 추동세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나름 노력을 해서 학교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 안에 다문화사회적 기업도 하고 하는데 작은 시작했으니까 점차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 길을 올리는 일에 저희도 일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같은 목소리로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두: 예,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장장 3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구대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다음 번에는 장소를 바꾸어서 대구나 경산의 활동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과도 이런 좌담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어

면 면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실천가이고 또한 동시에 연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활동가와 연구자들 간에 구분을 하여, 활동가들은 연구자들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연구자들은 활동가들을 현장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서로 대면도 하지 않거나 또는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도 서로 쳐다보지 않거나 쳐다보면서도 못 본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을 믿고 찾아와서 함께 좌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김연희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현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가져서 좋았습니다. 이것으로 좌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